

사진기자의 단상

“잠 쉬었다 허잔께”



눈을 뜬 듯 감은 듯 계승처럼 앉아 있던 아주머니, 고개가 푹~ 떨어집니다.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가도 이내 꾸벅꾸벅 '인사'를 합니다. 잠을 주체하기 힘들었는데 결국 한 쪽 팔을 턱에 겁니다. 8일 광주시 동구 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 88회 전국체전 성공기원 시민 한마당'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단잠'을 자는 아주머니를 보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광주 칠석고싸움 놀이를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 연습이 끝난 뒤 잠시 쉬는 시간,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

아진 것입니다. 힘든 고싸움 놀이, 연습하느라 피곤한 몸이 오후 식곤증까지 겹치면서 의자에 앉자 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그래도 '힘들다' 한마디 하지 않고 연습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들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열심히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전국 체전에 광주를 찾는 선수단·임원 등은 줄잡아 2만5천여명. 물려드는 관광객들만 10만여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광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거려도 맑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또 올 것 아니겠습니까. /워터리기자 jrwi@

오늘의 유머

■ 사연

시체실에 3명의 시인이 들어왔다. 모두 웃는 얼굴이다. 검사관이 경찰에게 물었다. “아니 모두 웃고 있는 겁니까?” “첫번째 시인은 일역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어 삼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두번째 시인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자기 자식이 일등했다고 충격 받았습니”라고 말했다. 검사관은 나머지 한사람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럼 이 세번째 사람은?” 경찰이 말했다. “이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어요?” “번쩍거리길래 자기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답니다”

■ 초등학생의 관찰 일기

풀숲에 작은 사마귀가 큰 사마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본 달봉이, 엄마 사마귀가 아기 사마귀를 등에 업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은 사마귀가 몇차례 꿈틀거리고 나자 큰 사마귀가 작은 사마귀를 잡아 먹는 것이다. 달봉이는 생각했다. “엄마 사마귀는 아기가 보채면 잡아먹는다” 관찰 일기를 본 선생님이 그것은 엄마와 아기가 아니라 암컷과 수컷인데, 교미를 마친 암컷은 배속의 알을 기르기 위한 영양 보충으로 수컷을 잡아먹는다고 했다. 그런 일들은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온 달봉이, 퇴근한 아빠를 즐겨 보면서 자꾸 피하는 것 아닌가!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엄마, “달봉아, 너 왜 자꾸 아빠를 즐겨보고 그래” “진짜 아빠 아니잖아, 진짜 아빠는 엄마가 나 배였을때 잡아먹었잖아!”

■ 별걸 다 도와주고 싶은 사오정

선생님이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는지 물었다. 철수가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우주선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다음은 영화가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엄마가 되어 예쁜 아기를 낳고 싶어요!” 다음은 사오정이 벌떡 일어났다. “저는 영화가 예쁜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 남자는 평생 다섯 번 변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초반기: “내가 지금 막 걸려던 참이었는데...” -진행기: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자.” -과도기: “내가 나중에 다시 걸면 안될까?” -관태기: “넌 꼭 사삼 바빠 때 전화질이나?” -말년기: 전화가 꺼져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여자가 약속 장소에 삼십분 늦게 나왔을 때. -초반기: “미안하긴~ 나 하나두 안 지루했어” -진행기: “늦은 별로 여기다 뽀뽀해” -과도기: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관태기: “누구는 시간이 썩어 남는 줄 아냐?” -말년기: 남자가 이미 가버리고 없다. ▲남자가 자기 친구들에게 여자 소개할 때. -초반기: 내 애인이야. -진행기: 우리 곧 결혼할지도 몰라. -과도기: 그냥 만나는 애야. -관태기: 애한테 직접 물어봐라. -말년기: 어, 너 아직두 안 갔냐? ▲데이트 끝나고 여자를 집에 보내 줄 때. -초반기: 기사 아저씨! 애네 집 앞까지 잘 부탁 드려요. -진행기: 이제 들어가, 대문 아까 열렸잖아. -과도기: 너 집까지 혼자 갈 수 있지? -관태기: 가라. 난 건너가서 탄다. -말년기: 택시~ 운양동!

■ 차고 문이 열렸네요

사장님 지퍼가 열린 것을 본 황당한 비서가 말했다. “사장님~! 차고 문이 열려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채지 못하던 사장이 비서가 손으로 가르키자 당황해 얼른 지퍼를 올리며 말했다. “내 에쿠스는 못 봤겠지?” 비서: “못 봤어요 사장님! 바퀴 두개가 펑크난 조그만 티코판 보이던데요”

뉴스퀴즈

84. 세계 각국 디자인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적 행사가 5일 광주에서 개막돼 3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빛 LIGHT'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실험 정신을 담은 2천7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 ①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② 전주세계소리축제 ③ 부산국제영화제 ④ 대구 애니캐릭터 축제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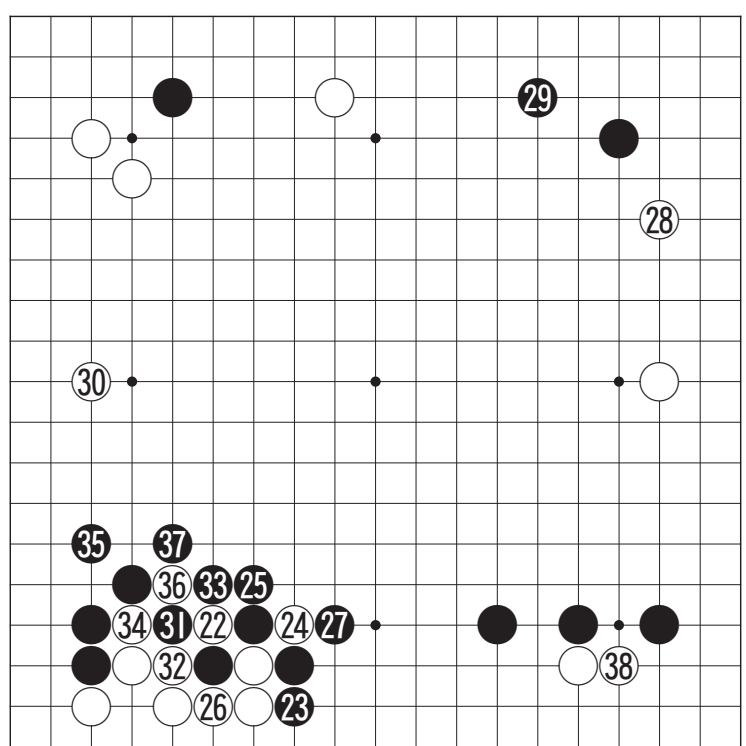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8월 29일 丙子)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October 9th.



광주시 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 흑의 책략에 말려들다 3보(22~38)

최강부 준결승 1국 백 김희관 5단 흑 선계성 6단 흑 ▲가 일종의 파워테스트로 초강수였다. 김희관 5단은 고민 끝에 백 22로 끊고 말았는데 이것이 선계성 6단의 책략에 말려든 나약한 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 1'의 백 1로 기동을 끊어가는 것이 절대 수로 흑 2로 두면 3 다음 11까지 슬슬 늘어서 흑이 망하게 된다. 또 흑이 '참고도 2'의 흑 8로 끊고 10으로 늘려 흑을 노리면 백 11로 짓히는 수가 좋다. 그러나 김희관 5단도 28, 30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38로 움직여 이제부터가 접전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 원익배서 이상훈 제압 이창호 9단이 8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2회전에서 이상훈 9단을 167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16강전에 진출했다. 이어 열린 대국에서 전영규 2단은 박병규 5단을 168수 만에 백불계로 제압, 본선 2회전의 문턱을 넘었다. 자동 출전권을 받은 전기 시드자 4명과 함께 후원사 지명시드를 받아 출전한 이창호 9단은 다음 대국에서 전기기대회 4강 멤버인 송태근 7단과 8강 진출을 다룬다. 전영규 2단은 목진석 9단과 16강전에서 격돌한다. 대회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How often do you play golf?), Japanese (お勘定(かんじょう)お願(ねが)いします.), Chinese (有什么事? 무슨 일이십니까?), and Korean (삼천갑자 동방삭(三千里子 東方朔)). Each column includes a lesson, dialogu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spective language center.